외래식물, 다도해 섬까지 점령

10개 섬에 110종… 토착식물 생장저해

철새 서식지에 강한 자생식물 심어야

다도해 해상공원의 섬지역까지 외래종 식물이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태계 보존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7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철새연구센터가 주최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나주대 김하송(한약자원학과 학과장)교수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10개 도서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외래식물의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김 교수는 지난 2004년부터 5년간 다도해 섬지역 곳곳을 틈틈이 방문해 외래종 식물을 파악한 결과 다도해 10개 섬에 뿌리를 내린 외래종은 총 33과 110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고흥 외나로도에서 90종이 관찰돼 조사지역 중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진도군 하조도에서 79종, 흑산도·금오도에서 각각 59과 54종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또한 신안군 우이도에서 43종, 홍도에서 48종이 관찰됐다.

공통적으로 관찰된 외래식물은 흰명아주, 미국자리공, 유럽나도냉이, 다닥냉이, 큰방가지똥, 도꼬마리 등 23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9개 지역에서 나타난 종은 미국가막사리, 삼나무, 겹달맞이, 까마중, 만수국 등 7종이었다.

특히 김교수는 물참새피, 털물참새피 등 환경부가 지정한 생태계교란 식물도 다수 포함돼 있어 방치할 경우 급속도로 확산돼 토착식물의 생장저해 등으로 자연경관이 망가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사람의 이동으로 외래종 식물이 확산돼 잠식되고 있는 상태"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철새 서식지를 복원하는 등 생태계 보존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이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교수의 이 같은 발표에 따라 관련기관들이 외래식물 분포와 확산에 대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각 군락지에 강한 자생식물을 심는 노력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자라풀〉

〈개보리〉

〈양미역취〉

"강진청자, 현대인 취향에 맞게"

청자박물관, 정기적 도자디자인 세미나 개최

강진 청자박물관(관장 안금식)이 현대인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 개발과 이를 생산에 접목시키기 위해 새로운 출발을 시도한다.

청자박물관은 29일 "도예작가 및 도자기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국내 유명 디자이너를 초청, 현대적 디자인을 중심으로 도자 디자인(Review & Preview) 세미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명품 고려청자 생산의 산실인 강진청자박물관은 지난 1977년부터 고려시대 국보 청자를 생산한 관요(官窯)의 맥을 이어 고려청자 재현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관내 23개 주요 개인업체들도 국보청자를 모델로 한 '청자상감운학문매병'과 주병, 과형주자 등의 생산으로 청자 판매량이 계속 증가해온 상태다.

또 청자박물관에서는 2006년 일본 순회전, 2008년 미국순회전, 2009년 유럽순회전 등 각종 전시회를 추진했으며, 여기에 관내 도예작가들을 적극 참여시켜 시대의 변화를 읽는 안목을 키우도록 기회를 제공해왔다.

그 결과 강진청자가 고려시대 작품을 재현하는 생산방식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 현대에 적합한 미적 감각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디자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런 공감대가 청자박물관장과 많은 개인요에 확산되면서 새로운 디자인 감각을 습득하기 위해 도자 디자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 지난 25일 청자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첫 세미나에서는 홍익대와 단국대 미술대학 이용필 교수가 초빙됐다.

'세계의 식기 디자인 공모전 중심으로 작품소개 및 설명'을 주제로 열린 이날 이 교수의 강연에는 청자박물관 및 관내 도예작가 40명이 참석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불멸의 이순신 역사'가 펼쳐진다면…

해남, 직원 우수 시책 4건 군정 반영키로

"해남 우수영에 '7년 전쟁 불멸의 이순신 역사체험'이 펼쳐지고, 땅끝마을에는 1천가지 이야기의 동화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해남군이 올해 시책 연수대회를 통해 발굴한 우수 시책들이다.

29일 해남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제7회 시책연수대회'를 열고 최종 심사에 오른 7건 중 4건을 선정해 이를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기획홍보실에서 제안한 스토리가 있는 조선수군 체험캠프인 '7년 전쟁 불멸의 이순신 역사체험'이 최우수 시책으로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옥천면의 '하늘 밑 땅끝 1천가지 이야기 동화마을 조성'이, 장려상에는 해양수산과의 '꼬막 치패 시범양식사업'이, 황산면의 '국토순례 일 번지 땅끝 해남 자전거대회'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최우수 시책으로 선정된 이순신 역사체험은 해병대 체험캠프를 접목한 조선수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내용으로, 우수영 유스호스텔을 비롯한 관광지 인근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당장 문화관광분야에 적용해 나가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남=박희석기자 dia@

불우이웃 나눔봉사

수자원公 전남본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최홍규)가 지역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나눔의 삶'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수공 전남지역본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28일 화순 노인복지센터〈사진〉에 이어 29·30일 쌍촌사회복지관, 송광사회복지관, 소년·소녀가장 가정을 방문해 식용유와 돌김 등을 전달한다.

전남지역본부는 재래시장 활성화 및 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중소기업청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 전통시장 가맹점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식용유 100세트와 돌김 140세트를 구매했다.

이에 앞서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4월말부터 6개월간 일자리창출 사업일환으로 주부사원 40여명을 채용, 지역 노인보호시설과 독거노인·장애인가정 등에 파견해 생활도우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기동기자 song@

화순 능주면 이장회의 미래 패러다임 만들기

화순군 능주면은 최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9월중 이장회의를 갖고 '능주면 미래를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안사업 안내와 미래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정병수 능주면장이 '나를 넘어야 미래가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실시했다.

정 면장은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할 수 있는 작목전환 추진 등 농촌의 현실과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며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특성화된 품목의 집중 육성을 통한 규모·조직화로 가격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 면장은 ▲2010년 추진할 능주목 관아 복원사업 ▲복지회관 신축 ▲하수관거 사업 ▲5일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군민의 날 및 풍류문화잔치 행사추진 등 현안사업을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현실부정의 습관을 타파하기 위해 '찾아라, 인정하라, 변화하라'는 슬로건을 채택해 살아숨쉬는 생동감있는 능주면 만들기에 나서자고 결의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무안농공단지 조경수 도난 이틀만에 찾아

3천만원 상당… 40대 공사현장 직원 적발

무안군 농공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3천만원 상당에 달하는 조경수가 도난당했다가 이틀만에 원상복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20일 새벽 청계면 청수리 청계 2농공단지 조성공사 현장에서 조경용으로 심어놓은 소나무 16그루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뒤늦게 인근마을 주민 장모씨의 신고로 도난사실을 인지한 무안군청 감독관은 21일 오후 5시 현장직원들을 추궁한 끝에 최모(남·43)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최씨는 감독관에게 조경수 절도사실 등 범행일체를 인정했으며, 절도한 조경수를 나주시 삼포면 가식장에 임시로 식재했다고 털어놓았다. 군은 23일 16그루의 소나무를 다시 공사현장에 옮겨 심은 뒤 최씨를 무안경찰서에 인계했다.

한편 무안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현장직원들 중에 공범이 있는지와 최씨의 여죄 여부에 초점을 두고 보강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장학금으로 돌아온 '희망근로'

진도, 장복식 할아버지 등 35명 인재양성 성금

"우리도 어렵게 살고 있지만, 지역인재 양성에 함께 참여하게 돼 가슴 뿌듯합니다."

진도군 의신면에서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35명이 28일 진도군청 상황실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은 장학금 110만원을 전달했다.

장복식(72)씨 등 희망근로 참여자 35명은 3개월 전부터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해오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람있는 일을 해보자'며 박봉의 월급에서 일부를 쪼개 '작은 소망을 실천하기 위한 기금'을 적립해왔다.

이들은 매월 80만원 가량의 월급에서 1만원을 적립해 이날 110만원을 '진도군 인재육성장학기금'으로 내 잔잔한 감동을 던져 주고 있다.

장복식씨는 "비록 액수는 적지만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한 35명 전원이 자발적으로 나보다 더 어렵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 고장의 인재양성을 위해 뜻을 함께 하자는 의미에서 성금을 맡기게 됐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다도해국립공원 서부사무소 '사진전시회'

국립공원관리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황정걸)는 지난 28일부터 3일간 목포 여객선터미널에서 국립공원 자연자원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국립공원 사진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서부사무소 제공〉